

‘남구의 통큰 행정’ 용호초 통학로 마침내 넓어진다

〈1.3m→1.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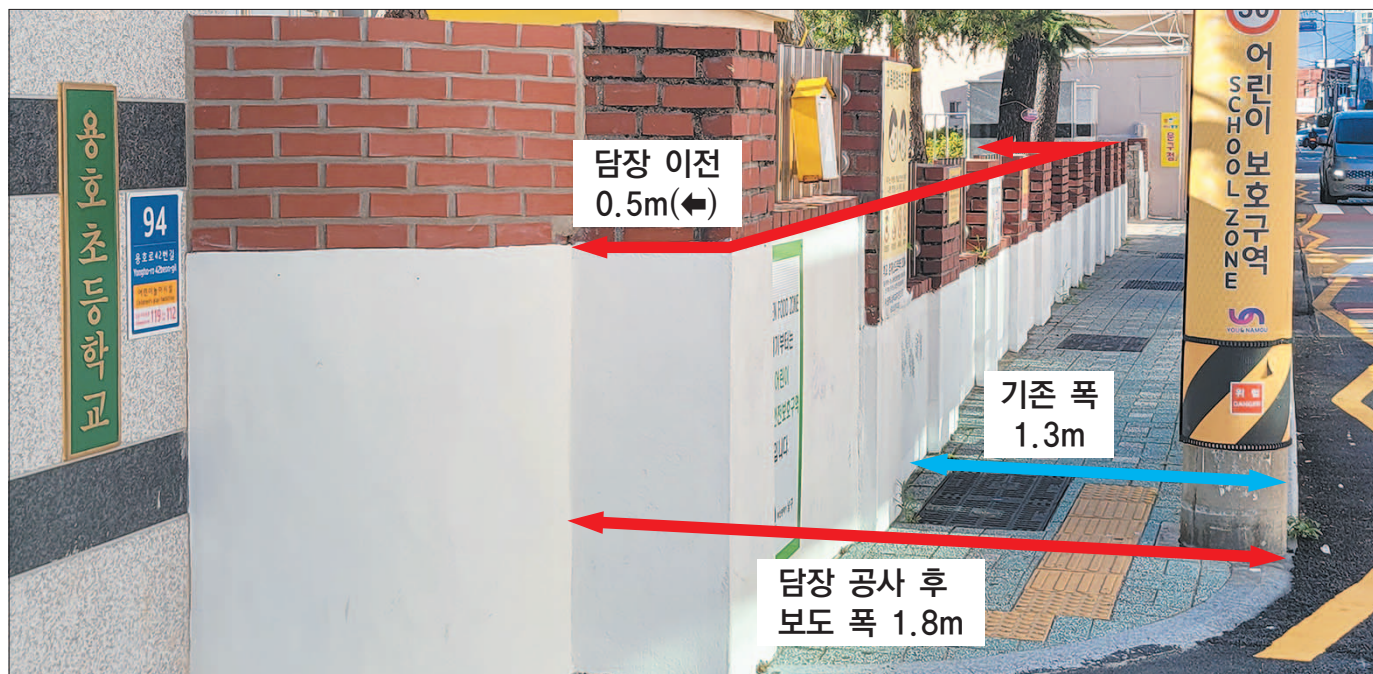
남구가 통학로 부지 매입해 학교 담장 0.5m 이전하기로

남구청·교육청 기관 간 이례적 협력 사례로 전국적 주목

남구의 ‘통큰 행정’으로 주민 불편과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온 용호초등학교의 통학로가 넓어진다.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이 1.3m로 좁아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왕래에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담장을 50cm 안쪽으로 옮겨 통학로 80m 구간의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

하고 남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기존 통학로는 1.3m→1.8m로 넓어질 예정이다. 남구는 통학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수비용과 부대비용 등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통학로 확장 사업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통학로 확장을 할 경우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통학로의 소유와 관리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창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정책과 ☎607-4851



안전남구

용당동에 태양광 LED 교통표지판 설치

시인성 높아 사고 예방 효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23개 설치

남구는 대형화물차 통행이 많은 용당동 일원(어린이보호구역 포함)에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에 교통표지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교통표지판을 최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LED 표지판은 모두 23개로 태양광 충전으로 주·야간 점등 및 자가 발전으로 작동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밤에는 균일한 LED면 발광으로 원거리 식별률이 크게 향상되고 안개나 폭우 속에서도 잘 보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크게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당동 일대는 대형트레일러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로, 특히 야간 통행 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태양광 LED 교통표지판 설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또 스마트 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 이른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용호초 일원 등 16곳에 바다형 보행신호등을 설치도 완료했다.
교통정책과 ☎607-4565

사업비 1억원 들여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대형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용당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친환경 안전통학로’로 새롭게 조성됐다.
‘안전 바다로 1길’로 명명된 용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기존의 어두웠던 낡은 옹벽을 밝은 바다 물결 디자인으로 페인팅하고 경고 게시물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 눈에 통학로가 더욱 잘 보이도록 했다.
이 사업은 예산 1억원을 절반씩 부담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SH수협은행이 조목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



해 조성했다.
용당초등학교는 신선대 부두 등 항만시설과 인접해 평소에도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노후된 옹벽과 낡은 펜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

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월 용당초등학교 정문 앞에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자리를 조성하고 40m 구간의 낡은 울타리도 교체했다.
교통정책과 ☎607-4565

남구 ‘금융 자사고’ 전담팀 구성

학교 설립 행정적 지원

금융특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후보지로 선정된 남구가 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교통, 환경, 건설, 건축 등 분야별 실무책임관으로 구성돼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또 도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실행 단계별 과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의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옆 공터가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 첫 금융 자사고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 금융 자사고는 지난 2~3월 부산의 16개구·군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진행 및 현장실사를 거쳐 남구가 1순위 후보지로 정해졌다.
평생교육과 ☎607-4831

남구 직원들, 극한호우 피해 돕기 모금

‘소비쿠폰’ 전액 기탁하기도

기록적인 폭우로 입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남구가 직원 특별성금 모금운동을 펼쳤다. 모금은 지난 7월 21~25일까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어느 직원

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을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뜨거운 온정이 몰렸다.
특별 모금액 646만원은 부산지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행정지원과 ☎607-4104

남구,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에 복구장비 지원

남구는 산청, 합천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복구장비를 자원봉사자에게 무상 대여한다. 남구는 양수기(12대),

수중펌프(15대), 삽(140점), 빗자루(105점) 등 수방장비를 비축하고 있다. 장비 대여는 남구 안전총괄과(☎607-4894)로 신청.

남구 노후주택에 고용량 안전 멀티탭 지원

7개동 340가구 전달… 내년엔 17개 전 동 확대 예정

에어컨 사용 등 여름철 전기 과부하에 따른 멀티탭(멀티콘센트)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남구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노후주택(아파트 포함)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340가구에 고용량 안전 멀티탭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대연4동 등 노후주택

이 많은 7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1인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가구로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남구 17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된 멀티탭은 16A 이상

고용량 인증 및 누전(과부하) 차단 기능이 탑재된 안전형 멀티탭으로 전기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멀티탭을 설치해 주고 안전사용 방법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설명하고 건강·안부 확인까지 병행했다.
안전총괄과 ☎607-4648



3년 지난 멀티탭 교체 권장
에어컨은 벽콘센트 꽂아야

■멀티탭 안전 수칙

- 멀티탭 구매시 정격 용량·KC 안전 인증 마크 확인
- 에어컨 등 고전력 전자제품을 꽂을 경우 ‘고용량 멀티탭’ 권장
*고용량 멀티탭이라도 여러 전자제품 동시 연결(문어발식 연결)은 위험.
- 멀티탭은 3년 주기로 교체 권장
- 멀티탭 또는 전자제품의 선을 꺾거나 묶는 것은 금물

고전력 전자제품은 벽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 벽 콘센트의 위치가 멀어 선을 연장할 용도로 멀티탭 사용 시 단독 사용 권장.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시상부문 : 총 7개 부문(부문별 1인)

일반상			특별상			
애항	봉사	효행	행정	교육	치안	소방

- 애항부문 : 남다른 애항심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봉사부문 :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실천한 자
- 효행부문 : 화목한 가정을 꾸며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한 자
- 추천기간 : 2025. 7. 11.(금)~8. 20.(수)
- 추천대상 : 남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시

상부문의 공적이 현저한 자(특별부문은 3년 이상 근무)

- 추천 방법 : 제출서류 방문 또는 우편(등기)
 - 방문접수 : 남구청 5층 행정지원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5층 행정지원과(대연동)
 - ※ 관련 서식 비치 : 남구청(행정지원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홈페이지
 - 시상 : 2025년 10월 UN평화축제 개막식(예정)
- 문의 : 남구청 행정지원과(☎607-4114)